

지역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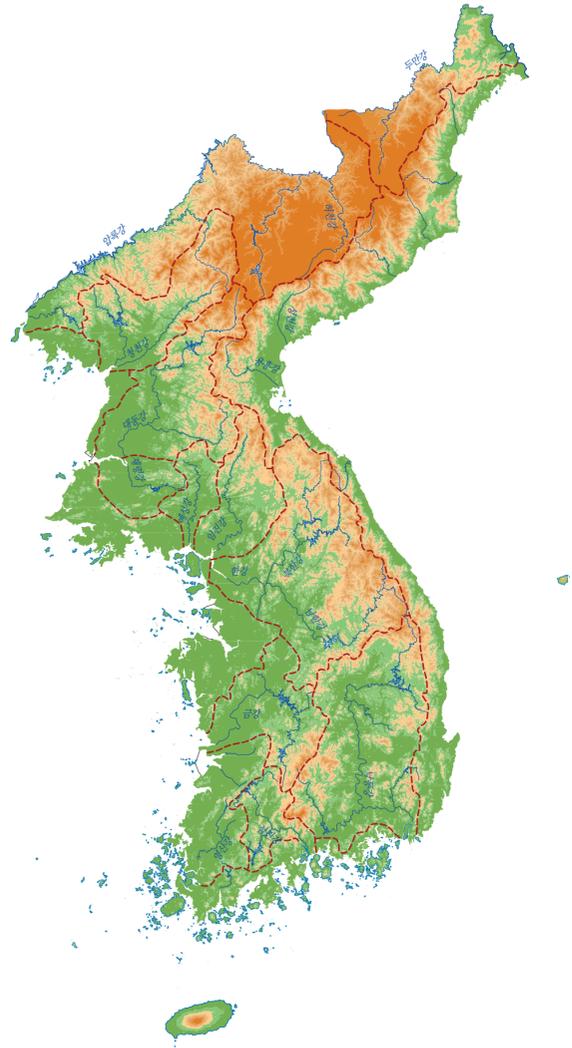
대한민국의 지역 구분에는 크게 행정적 구분과 지리적 구분이 적용되어 왔다. 행정적 구분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정하는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리적 구분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을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지역 구분에는 행정적 구분과 지리적 구분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산과 강은 생활권 단위의 지리적 구분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고령 시대 이후 정립된 행정 구역은 현재 우리나라 행정 구역의 근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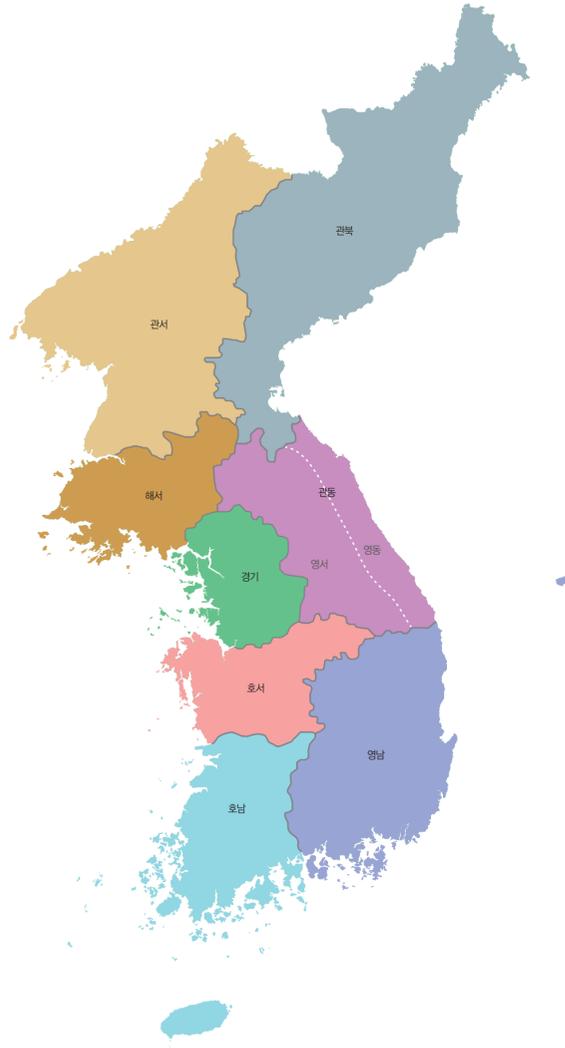
우리나라 지역 구분에는 도 중심의 행정 구역이 중요하게 고려되어 왔다. 실제 지역 구분도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적인 지역 구분과 유사하게 하였으며 고령 시대 이후 정립된 행정 구역은 현재 우리나라 행정 구역의 근간이 되었다. 이와 같은 상

황에서 한국인의 생활에 여전히 남아 있는 방언은 지역 구분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주요 하천 기준 유역 구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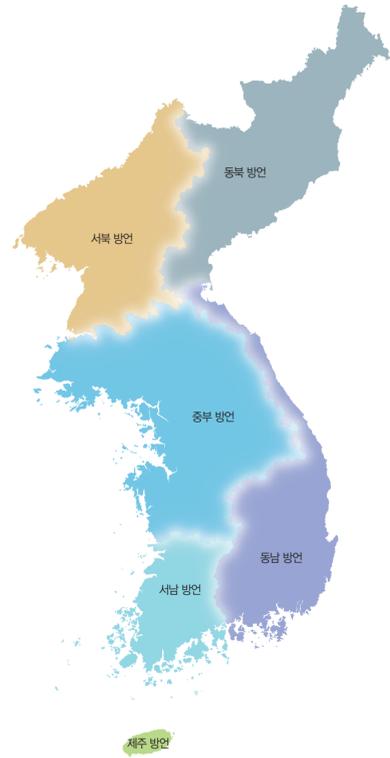
전통적 지역 구분(조선 시대)



현대의 지역 구분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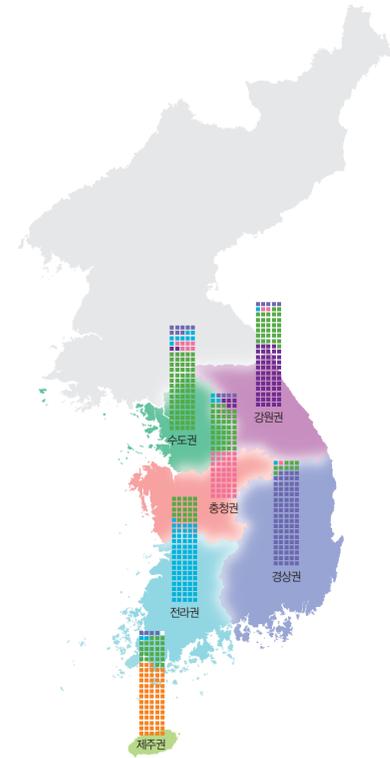
방언에 의한 지역 구분



현대의 지역 구분 II



국내 방언 사용 인구 비율



대한민국의 전통적 지역 구분에서 각 지역의 명칭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의 행정 구역과 높은 연관을 가진다. 전통적인 지역 구분에서 관서 지역은 조선 시대 행정 구역 기준으로 평안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며, 관북 지역은 함경도, 관동 지역은 강원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다. 이 가운데 관동 지역은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다시 동서로 나누어 서쪽을 영서, 동쪽을 영동으로 인식하였다. 해서 지역은 황해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며, 경기 지역은 한양을 포함한 경기도를 의미하였다. 호서 지역은 조선 시대의 행정 구역 기준으로 충청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고, 호남 지역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라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다. 영남 지역은 소백산맥을 경계로 조령의 남쪽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경상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다.

전통적인 지역 구분의 일부는 여전히 생활 속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행정 구역의 변화에 따라 각 지역이 의미하는 공간적인 범위는 변화하여 왔다. 대한민국을 나누는 지역의 가장 큰 단위는 북부와 중부, 남부의 구분이다. 일반적으로 북한 지역 전체가 북부 지역에 해당하며, 수도권과 충청, 강원 지역이 중부 지역, 호남, 영남, 제주 지역이 남부 지역으로 구분된다. 강원 지역은 전통적 지역 구분에서와 마찬가지로 태백산맥 기준으로 영동 지역과 영서 지역으로 구분된다.

한국어 방언은 다양한 구분 방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서북·동북·중부·서남·동남·제주 방언의 여섯 계열로 나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언의 사용 지역을 엄밀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대체로 도 단위의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방언 구획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중부 방언은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 영서 지역과 황해도를 중심으로 하고, 서남 방언은 전라권을 중심으로 하며, 서북 방언은 평안남도과 평안북도를 중심으로 한다. 동남 방언은 경상권과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동북 방언은 함경남도과 함경북도를 중심으로 하며, 제주 방언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다.

남한 지역의 방언은 표준어와 강원 방언, 충청 방언, 전라 방언, 경상 방언, 제주 방언으로 나누기도 한다. 2010년 수행된 국립국어원의 국민 언어 의식 조사에 따르면 전국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 스스로 표준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38.6%로 가장 높고, 경상 방언 30.9%, 전라 방언 14.7%, 충청 방언 9.2%, 강원 방언 4.5%, 제주 방언 2.0%, 북한 방언 0.1% 순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인구 이동, 도시 발달 등에 영향을 받는다. 대체적으로 영남권과 호남권에서 해당 지역 방언 사용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